

한 별 농 장

IMF, 형제간 우애와 협력으로 극복한다

한별농장 전경, 돈사는 남쪽을 향하고 있으며, 환기가 잘 되고 있다.

우 리나라가 금융환란으로 인해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여 IMF 체제로 돌입한지 벌써 1년(98년 11월 16일 현재)이 되었다. 그동안 국내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이 단행되었으며, 전혀 믿겨지지 않을 만한 큰 사건들이 우리들의 귀를 연일 시끄럽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 연결되어 국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는 곧바로 국민들의 식생활 패턴에도 변화를 몰고와 결과적으로 우리 양돈농가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돼지고기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어 돼지고기 값의 폭락으로 이어지면서 이로 인한 양돈장의 부도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우리 양돈 산업에도 예외없이 몰아쳤다. 물론 배합사료값, 약품값 등의 큰 폭 상승과 무리한 양돈장 시설 투자에 따른 양돈농가들의 부실여신 증가 등도 어려움의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우리 양돈농가들도 돼지만 잘키우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앞날을 예측하고 농장 경영분석을 철저히 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경영 감각을 가지도록 노력해야만이 이 어려운 시대에 수익성 높은 양돈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목리에 위치한 한별농장은 신경영·신감각을 가지고 농장성적 뿐만 아니라 질병이 발생

했을 경우 이를 신속히 외부에 알리고 현명한 대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농장 경영을 하여 수준 높은 농장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신경영·신감각을 가진 한별농장 조용규·조봉규 사장

형 조용규(53세)사장과 동생 조봉규(45세)사장은 형제지간으로 고향은 용인시 내사면이며, 양돈은 지난 80년대 중반 동생 조봉규사장이 경북



▲형제간의 우애와 협력으로 이들은 지난 10년을 함께 농장을 경영해오고 있다. (좌측 조봉규(동생)사장, 우측 조용규(형)사장)

고령에서 4~5백두를 경영하다 규모를 더 늘릴 것을 계획하고 89년 지금의 터에 형과 함께 돈사를 신축하여 입주하면서 농장을 시작하여 현재 10년째 공동으로 농장을 경영해오고 있다. 조용규 사장은 서양화가로 잘 알려진 사람으로 30여년간을 그림과 함께 지내다가 당뇨병 등 건강이 악화되어 농장 생활을 하게 되었으나 지금은 오히려 돼지를 기르는 일에 상당한 열정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그림은 그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별농장은 총부지 2,300평에 자돈사, 육성사, 비육사, 후보돈사, 분만사 등 6동의 돈사로 되어있으며, 사육두수는 총 2천두 규모로 번식과 비육 일관사육 농장이다.

특히 한별농장은 주간관리시스템인 올-인, 올-아웃 시스템을 10년 전부터 연구하여 실시하고 있었으며, 이는 현재 2,000두 규모의 농장을 다른 외부인력 채용 없이 두 형제가 꾸려나갈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주간관리의 장점을 십분 이용하여 적은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평일은 보통 6시 이후면 일이 끝나며, 주말에는 두 형제가 번갈아가면서 쉬는 등 농장생활에 따른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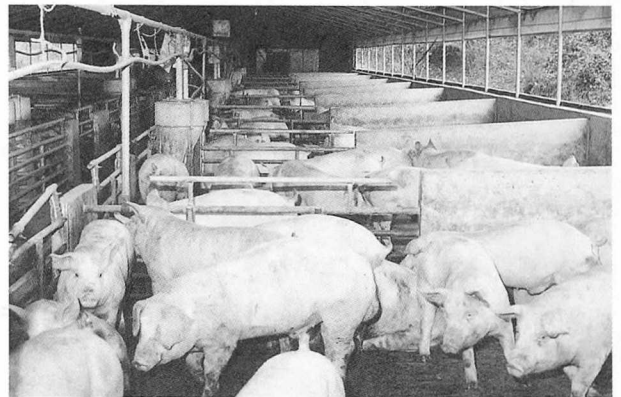
한별농장은 모든 200두에 대하여 모두 인공수정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간혹 시기를 놓친 미발정돈과 인공수정 후 수태가 안된 모돈의 경우에 한하여 자연교배를 시키고 있었다. 이 농장이 보유하고 있는 웅돈은 듀록 2두이며, 후보돈의 경우 20~25%를 계획적으로 생산하여 항상 확보하고 있다. 선발은 자체선발하지만 웅돈정액은 인공수정센터를 통해 공급받아 생산하고 있었다.

특히 서울경기양돈축협이 사양관리 전산기록



▲조용규 사장이 비육돈들의 상태를 둘러보고 있다.

▶생후 150일령된 돈공들, 균일하게 크는 것이 눈에 보인다.



에 가입되어 있어 농장의 성적변화와 타농장과의 성적비교 등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자신의 농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었다.

농장성적의 지표인 PSY는 지난해 까지만 해도 평균 23.3두의 성적을 보였으며, 올해 초 PED가 발생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은 후 올해 11월 현재에는 20.5~21.3두를 나타내고 있었다. 출하는 한달에 250~300두를 서울 독산동 태강산업과 가락동 축협공판장을 통해 출하하고 있었으며, 전량 내수로 판매된다고 하는데 보통 110kg 이상의 비육돈을 170~180일령에 출하한다고 한다. 다만 한별농장의 경우 거세를 하지 않아 이는 시급히 개선해야할 부분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 부분도 조만간 실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철저한 계획하에 시설 투자해

한별농장 시설을 보면 돈사 전체가 개방식으로 되어 있었으며, 분뇨처리에는 분만사의 경우엔 슬러리로 그리고 그 나머지는 스크레퍼를 이용해 돈분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IMF 이전 많은 양돈 농가들이 정부의 축산정책자금을 받아 자신들의 규모보다 더 큰 농장으로 확대를 모색하다 곤경에 처한 상태가 되었지만 한별농장 조용규·봉규 사장은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않고 기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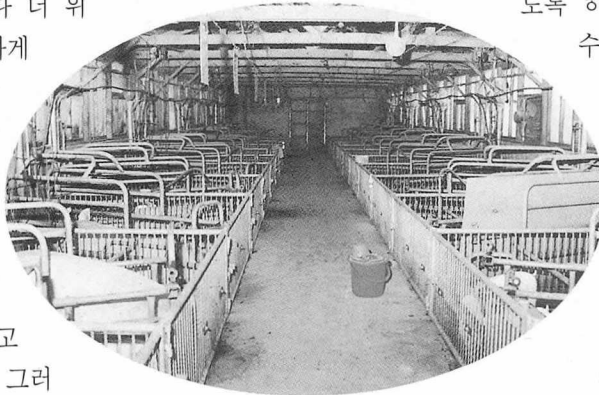
시설을 잘 활용하여 보다 더 위생적으로 관리를 깨끗하게 해줌으로 높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실제로 필자가 돈사안을 들어가 보니 돈사내 환경이 상당히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었으며, 돼지들이 균일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분뇨처리에 대해서 만큼은 기존시설이 폐수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톱밥을 이용한 발효건조기로 시설을 할 것을 계획하고, 자부담 2천만원, 융자 3천만원, 정부보조 5천만원 등 1억 원을 들여 분뇨처리시설 공사를 시작하여 거의 완공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톱밥 수급은 별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분뇨처리에는 농장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압박하는 요인으로, 될 수 있는한 완벽하게 처리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이번 분뇨처리시설이 완공되어 가동되면 분뇨처리 효과 이외에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의사의 교육장으로 이용되는 한별농장

현재 한별농장은 분회 회원 뿐만 아니라 서울



▲분만사 내부 전경, 바닥은 슬러리 형태로 되어 있으며 내부가 쾌적할 정도로 환기가 잘되고 있다.

경기양돈축협 조합원 농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농장의 전반적인 사양관리는 조합차원에서 전산관리해 주고 있으며, 농가들간 서로의 성적을 개방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 농가들간 벤치마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한별농장은 10년전부터 주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이농장이 다른 농장보다 얼마나 앞서가기 위해 노력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깨끗한 돈사 환경은 돼지들이 균일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아주 큰 배려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양돈조합에 신입채용된 수의사들이 한별농장에 와서 보고 실습하는 등 수의사들의 교육장으로도 훌륭하게 이용되고 있었다.

PED 발생해 자돈 300두 폐사한 경험 있어

한별농장은 평소 소독·백신 등의 기본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으나 올해 초 2월경에 공교롭게도 PED에 감염되어 분만 6일령부터 폐사돈이 발생한후 300두에 이르는 자돈이 모두 폐사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다행히도 담당 수의사와 상의하여 신속히 대처한 후 눈에 보이는 피해는 더 이상 없었지만 설사병 후유증으로 인하여 허약돈이 계속 발생하였으며, 모돈의 재귀발정률이 높아지는 등 보이지 않는 피해를 어느정도는 감수해야만 하는 아픈 경험을 맛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후 농장입구 생석회 살포, 철저한 백신, 예방방역 등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에는 예전의 사양수준으로 복귀하였다고 한다.

한별농장 조용규사장은 질병이 이렇게 무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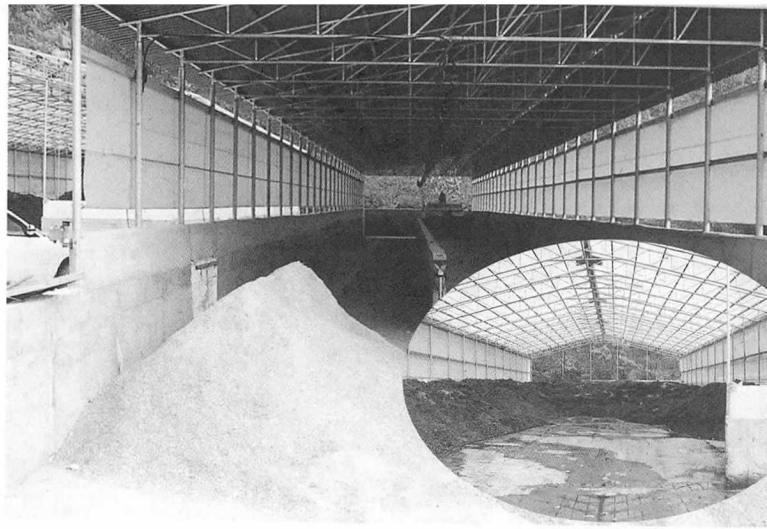
줄은 몰랐다면 질병예방에 더욱 신경을 써야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PED가 어떠한 경로로 농장에 들어왔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추정하는 바로는 농장 외 집에서 사육하는 개에게서 옮겨왔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개들에게 주인이 다른 외부의 양돈장에서 폐사돈을 들여와 먹었다는 점과 폐사돈이 유입되는 경로가 농장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만큼 농장방역에 상당한 구멍이 나 있었다는 점 등이 질병이 발생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조용규 사장은 농장 출입구에 생석회를 도포해 놓았다. 또한 농장 출입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등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있다.

질병문제만 해결되면 농장은 할 만하다

지금 양돈장을 경영하는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근심거리는 축산정책자금 등 농가부채 문제이다. 이 때문에 농장이 파산되는 경우도 요즘들어 부쩍 늘었다. 물론 사료값, 약품값, 분뇨처리비용, 질병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산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별농장은 이중 질병문제만 잘 해결된다면 농장을 경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다른 양돈농가에 비해 사양관리수준, 금융기관 여신관계 등은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초 PED가 발생했듯이 질병차단이 가장 어려움이라는 것이다.

조용규 사장은 질병차단을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PED가 발생한 원인이 외 집에서 사육하는 개에게서 옮겨왔다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한다. 조용규 사장은 만일 원인이 외 집 개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그것을 제재할 사후 조



▲새로이 신축하여 완공단계에 이른 돈분 발효처리장 전경, 이 시설은 총 1억원의 비용이 투자된다. 원내는 기존의 분뇨건조장.

치가 힘들다며, 이를 위해서는 “협회사 축협 등 생산자단체 차원에서 질병제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폐사돈의 외부유출 및 유입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며, 제도가 현실에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형제이기 때문에 협력이 잘된다

한별농장의 등기는 동생 조봉규사장 앞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농장 대표는 형과 동생이 공동대표이다. 때로는 사소한 문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그때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한다. 2천두의 돼지를 두 형제의 힘으로 관리하는데는 두분의 부인들도 한 몫을 한다. 인원이 필요한 경우 서로 도와주기 때문이다. 형제이기 때문에 더 이해하고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불필요한 의견다툼은 없다고 한다. 오직 두 형제에게는 IMF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협력만이 존재할 뿐이다. 특히 조용규 사장은 예전의 당뇨병이 농장생활을 하며 열심히 땀을 흘린 이후로 혈당치가 내려가므로 상당히 건강이 좋아졌다고 한다. 그러면서 모든 일은 땀을 흘려야 된다면 너털 웃음을 지어보이기도 한다. **養豚**

〈취재 : 이병석〉